

키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부엌이다.

그것이 어디에 있든, 어떤 모양이든, 부엌이기만 하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장소이기만 하면 나는 고통스럽지 않다. 기능을 잘 살려 오랜 세월 손때가 묻도록 사용한 부엌이라면 더욱 좋다. 뽕송뽕송하게 마른 깨끗한 행주가 몇 장 걸려 있고 하얀 타일이 반짝반짝 빛난다.

구역질이 날 만큼 너저분한 부엌도 끔찍이 좋아한다.

바닥에 채소 부스러기가 널려 있고, 실내화 밑창이 새카매질 만큼 더러운 그곳은, 유난스럽게 넓어야 좋다. 한 겨울쯤 무난히 넘길 수 있을 만큼 식료품이 가득 채워진 거대한 냉장고가 우뚝 서 있고, 나는 그 은색 문에

기댄다. 튀긴 기름으로 녹진한 가스 레인지며 녹슨 부엌
칼에서 문득 눈을 돌리면, 창 밖에서는 별이 쓸쓸하게
빛난다.

나와 부엌이 남는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아
주 조금 그나마 나온 사상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기진맥진 지쳤을 때, 나는 문득 생각에 잠긴다.
언젠가 죽을 때가 오면, 부엌에서 숨을 거두고 싶다고.
홀로 있어 추운 곳이든, 누군가 있어 따스한 곳이든, 나는
떨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고 싶다. 부엌이면 좋겠는데, 라
고 생각한다.

다나베네 집에 신세를 지게 되기 전까지, 나는 매일
부엌에서 잠들었다.

방에서는 잠들기가 어려워 점점 편한 곳으로 흐르다보
니, 어느 날 아침, 냉장고 옆이 가장 잠자기 편한 곳이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 사쿠라이 미카게의 부모는 젊은 나이에 나란히 죽
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길러주었다. 중학
교에 들어갈 무렵, 할아버지가 죽었다. 그후 내내 할머
니와 둘이서 살았다.

며칠 전, 할머니가 죽었다. 깜짝 놀랐다.

확실하게 존재하였던 가족이란 것이, 세월을 두고 한
명 두 명 줄어들어, 지금은 나 혼자라 생각하니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보였다. 이렇게 시간이 흘
러, 태어나고 자란 방에 나 혼자 있다니, 놀랍다.

무슨 SF같다. 우주의 어둠이다.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 한 사흘은 멍하고 지냈다.

눈물도 마른 포화 상태의 슬픔이 흔히 동반하는 나른
한 잠의 꼬리에, 조용한 부엌에 요를 깔았다. 라이너스
처럼 담요를 둘둘 말고 잠든다. 위—잉, 냉장고 소리가
내 고독한 사고를 지켜주었다. 그곳에서는, 그럭저럭 평
온하게 긴 밤이 가고, 아침이 와주었다.

다만 별 아래서 잠들고 싶었다.

아침 햇살에 눈뜨고 싶었다.

그 외의 모든 것에는 그저 담담했다.

그런데! 그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현실은 무지막지
하다.

할머니가 다소 돈을 남겨주기는 하였지만, 혼자서 살
기에 그 방은 너무 넓고 너무 비싸서, 나는 다른 방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할 수 없이, 주택 정보지를 사서 들춰보았지만, 그렇
게 많은 똑같은 방들을 보고 있자니, 어질어질 현기증이

일었다. 이사는 노동이다. 힘이다.

나는 기력도 없고, 밤낮 부엌에서 잠을 잤더니 온몸 따디마디가 아픈데, 이런 휘청거리는 머리로 정신을 차리고, 집을 보러 가야 하다니! 짐을 날라야 하다니! 전화를 연결해야 하다니!

끝도 없이 떠오르는 성가신 일들을 생각하며 절망하여 뒹굴뒹굴 자고 있는데, 기적이 찻쌀 경단처럼 찾아온 그 오후를, 나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딩동, 느닷없이 현관 벨이 울렸다.

구름진 봄날의 오후였다. 나는 주택 정보지를 보다가 지쳐, 어차피 하는 이사다 싶은 마음에 잡지를 끈으로 묶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당황하여 거의 잠옷 같은 차림으로 뛰어나가, 아무 생각 없이 잠금쇠를 풀고 문을 열었다. (강도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었다.) 문 밖에는 다나베 유이치가 서 있었다.

「지난번에는 고마웠어요」

라고 나는 말했다. 장례식을 열심히 거들어준, 한 살 아래 청년이었다. 듣자하니 같은 대학에 다닌다고 한다. 나는 지금 휴학중이다.

「천만에요」 그가 말했다.

「살 데 정해졌나요?」

「아니, 전혀」

나는 웃었다.

「역시」

「들어와서 차라도 마세요」

「아닙니다. 지금 나가는 길이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는 웃었다.

「전할 말이 있어서, 어머니랑 의논했는데, 당분간 우리 집에 와 있지 않겠어요?」

「네?」

나는 말했다.

「아무튼 오늘밤, 7시쯤에 오세요. 이거, 지도」

「네에」

나는 메모지를 받았다. 어안이 병병하였다.

「그럼, 미카게 씨가 와주길, 어머니나 저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가 웃었다. 너무도 환하게 웃어, 현관에 선 그 사람의 눈동자가 한층 가깝게 느껴졌다. 눈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그가 갑자기 이름을 부른 까닭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럼, 아무튼 갈게요」

나쁘게 말하면, 마(魔)가 낀 것이리라. 하지만 그의 태도는 아주 <쿨>했다. 믿음직스러웠다. 눈앞의 어둠 속

으로, 마가 길 때면 늘 그렇듯, 외길이 보였다. 하얗게 빛나고, 틀림없을 듯 보인 나는 그렇게 대답하였다.

그는, 그럼 나중에, 라고 말하고 웃으며 돌아섰다.

나는,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기 전까지는 거의 그를 몰랐다. 장례식 날, 다나베 유이치가 불쑥 찾아왔을 때, 나는 그가 정말 할머니의 애인인 줄 알았다. 분향을 하면서 그는, 퐁퐁 부어오른 눈을 꼭 감고 손을 떨었다. 할머니의 영정을 보자, 다시 눈물을 푹푹 흘렸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혹 내가 이 사람만큼 할머니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싶었다. 그만큼 슬프게 보였다.

그리고 손수건으로 눈두덩을 누르면서,

「제가 좀 거들게요」

라고 하기에, 그후,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았다.

다나베 유이치.

할머니한테서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는지 기억해 내는 데 시간이 꽤 걸렸다. 혼란스러웠던 것이리라.

그는 할머니가 단골로 찾는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었다. 참한 청년이 있는데, 다나베 군이 말이지, 오늘도…… 란 말을 몇 번이나 들은 기억이 있다. 할머니는 꽃꽂이를 좋아하여 항상 부엌에 꽃이 꽂이지

않았다. 매주 두 번은 꽃집에 드나들었다. 그러고 보니, 그가 커다란 화분을 들고 할머니를 따라 우리 집에 온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는 손발이 길고 얼굴 생김도 예쁘장한 청년이었다. 성품이야 어쩐지 알 수 없었지만, 꽃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본 듯한 기분도 든다. 조금 알게 된 후에도, 그의 그 웬지 <쌀쌀한> 인상은 변함이 없었다. 몸짓이며 말투가 아무리 상냥해도, 그는 늘 혼자 살고 있으리란 느낌을 주었다. 즉 그 정도 사이에 불과했다. 전혀 남남이었다.

밤은 비였다. 추절추절, 뜨끈한 봄비가 도시를 감싸 뿌연 봄날의 밤을, 지도를 보며 걸었다.

다나베네 아파트는, 우리 집에서 중앙 공원을 끼고 정 반대편이었다. 공원을 지나는 길은, 무성한 밤의 초록 내음으로 숨이 다 답답했다. 비에 젖어 번들번들 무지갯빛으로 번지는 오솔길을 처벅처벅 걸어갔다.

나는 솔직하게 말해, 오라고 해서 가는 것뿐이었다.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 높이 우뚝 솟은 아파트를 올려다보자, 그의 방이 있을 10층이 너무 높아, 밤풍경이 아름답게 보이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로 올려퍼지는 발소리에 신

경을 쓰면서 벨을 누르자 유이치가 문을 확 열고,

「어서 오세요」

라고 말했다.

실례합니다, 라고 말하며 들어선 그곳은, 정말이지 묘한 공간이었다.

우선, 부엌과 이어져 있는 거실에 덩그마니 놓여 있는 거대한 소파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넓은 부엌의 찬장을 배경으로, 테이블도 없이 카펫도 깔리지 않은 바닥 위에 덜렁 놓여 있었다. 베이지 색 천에, 텔레비전 광고에 나올 법한, 온 가족이 모여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곁에는 일본에서는 기르지도 못할 만큼 큰 개가 있는, 그런, 정말 멋진 소파였다.

베란다가 보이는 커다란 창문 앞에는, 마치 정글처럼 무성하게 자란 식물 군이 담긴 화분이며 플랜터가 죽 놓여 있었다. 집 안에도 꽃투성이였다. 여기저기 다양한 꽃병에 봄꽃들이 장식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지금, 가게에서 잠깐 빠져나오겠다고 하니까, 집 안이라도 둘러봐요. 안내할까요? 뭐로 판단하는 타입이죠?」

차를 따르면서 유이치가 말했다.

「뭘요?」

내가 그 폭신한 소파에 앉아 되묻자,

「집과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취향. 화장실을 보면 안다든지, 흔히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는 담담하게 웃으면서, 차분하게 말하는 사람이었다.

「부엌」

이라고 나는 말했다.

「그럼, 여기로군요. 마음대로 봐요」

그가 말했다.

나는 차를 끓이는 그의 뒤로 돌아 부엌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마룻바닥에 깔린 깔끔한 매트, 유이치가 신고 있는 슬리퍼의 고급스러움——필요한 최소한의 부엌 용품들이 반듯하게 걸려 있다. 오랜 세월 길들여진 도구들. 실버스톤 프라이팬과 독일제 껌질 벗기기 칼은 우리 집에도 있었다. 게으름뱅이 할머니가 껌질이 술술 벗겨지자 신나했었다.

조그만 형광등 불빛을 받으며 암전하게 자기 차레를 기다리는 식기류, 빛나는 유리 잔. 언뜻 보면 하나도 일관성이 없는데, 묘하게도 품위 있는 것들뿐이었다. 특별한 요리를 만들기 위한…… 예를 들어 사발, 그레탕 접시, 큰 접시, 뚜껑 달린 맥주 조끼, 그런 것들도 보기 좋았다. 조그만 냉장고도, 유이치가 팬찮다고 하여 열어 보니,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넣어놓은 채 방치된

식품은 없었다.

음음, 고개를 끄덕거리며 둘러보았다. 멋진 부엌이었다. 나는, 그 부엌을 한눈에 사랑하게 되었다.

돌아와 소파에 앉자, 유이치가 뜨거운 차를 따라주었다.

처음 방문하는 집에서, 지금까지 별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과 마주하고 있자니, 웬지 친애 고아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둠 속에서 비에 젖은 밤풍경이 번져 있는 커다란 유리창, 에 비치는 자신과 눈이 마주친다.

세상에, 나와 핏줄이 닿는 인간은 없고,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모두 가능하다니 아주 호쾌했다.

세상은 이렇게 넓고, 어둠은 이렇게 깊고, 그 한없는 재미와 슬픔을, 나는 요즘 들어서야 비로소 내 이 손으로 이 눈으로 만지고 보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아왔어, 라고 나는 생각한다.

「왜, 나를 부른 거죠?」

내가 물었다.

「힘들 것 같아서」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상냥하게 말했다.

「할머니가 정말 귀여워해 주셨고, 보다시피 쓰지 않는

공간도 꽤 많고 해서. 그 집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요. 지금 주인이 호의를 베풀어, 덕분에 눌러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사용해 주었으면 해서요」

그는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듯 말했다.

그의 그런 태도가 너무 친절하기도 너무 쌀쌀맞지도 않아 오히려 지금의 나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듯하였다. 웬지, 눈물이 나올 정도로 마음이 저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문이 덜컥 열리고, 무지무지한 미인이 숨을 헉헉거리며 뛰어들어왔다.

나는 놀라 눈을 부릅뜨고 말았다. 나이는 꽤 많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정말 아름다웠다. 일상적으로는 입기 어려운 복장과 짙은 화장으로, 나는 그녀의 직업이 밤일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사쿠라이 미카게 씨야」

유이치가 나를 소개하였다.

그녀는 헉헉 숨을 쉬며 약간 쉰 목소리로,

「처음 뵙네요」라며 웃었다.

「유이치의 엄마, 에리코라고 해요」

이 사람이 엄마?

나는 놀란 이상으로 눈길을 땔 수가 없었다. 어깨까지